**<2장 : 프로젝트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컴퓨터 SW 15050045 이재우

컴퓨터 분야는 광범한 주제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위 과정 수준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일을 항상 어려운 일이다.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면, 선택한

프로젝트를 수용할 제안서를 만들어야 하고 적절한 감독관도 선정을 해야 한다.

먼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일단 지나치게 어려운

프로젝트는 삼가고 일정 기간 내에 수행 가능한 범위의 프로젝트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선에서 택해야 한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중간에 지치거나 동기부여를

잃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대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여야 한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분명한 목표와 결과를 가진 프로젝트여야 수행하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추가적으로

학위 과정과 연결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원들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한 추천이다. 조교에 의해 제안되거나, 지역 산업에서 요청 받은 소규모 프로젝트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과거의

프로젝트들이다. 이것들이 현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대략적인 작업의

양과 범위를 짐작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제시 받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주제에 영역에 대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자유 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를 세부적으로

분해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군집화이다. 군집화는 선택한 주제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나열하고 그것들은 관련 그룹과 패턴에 따라 함께 묶는 두 단계로 행해진다.

이를 통해 특정 주제들을 확인하고 의도한 프로젝트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군집화는

RTM, 연관 트리, spider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RTM은 연구 영역의 개념적

모델을 제공하면서 주제가 어떻게 선택한 분야 내의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지를 보여준다. 즉,

주체들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연관 트리는 택한 연구 분야를 모델로 삼는다는 점에서

RTM과 유사하지만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RTM이 주제 간 관계를 통해

전체론적 해석을 제공한다면 반대로 관계 트리는 주제의 구성과 연구 주제가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하면서 분해하여, 더 세부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관계 트리처럼 사고를

구조화하고 주제들을 분해하는 것이 spider 다이어그램이다. 이는 주제 영역 내 주체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RTM과 비슷하고 큰 주제로부터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분해되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계 트리와 유사하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선택한 주제 영역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기 위해 구조화된 것들이다.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엄격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이해를 심어줄 정도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인 즉,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고 스스로 확신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개념에 갇혀 있지 않고 세계 지식의

넓은 맥락 속에 그것들을 배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정보처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면, 다른 이들에게 수용성과 적합성을 평가 받기 위해 제안서를

준비해야 한다. 제안서는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책임자 간의 계약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성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되는 정보들을 위해 포함시켜야 할 섹션들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오류나 누락도 겉으로 봤을 때 대충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과 암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다.

주제 영역에 대한 소개, 해당 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는 것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제안서라는 형식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준다.

반면 제목, 목적과 목표, 예상되는 결과와 산출물, 핵심어, 소개/배경/검토,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유형, 연구에 대한 질의와 가설, 연구 방법, 자원 요구 사항, 그리고 프로젝트 세부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항목이다. 제목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목적과 목표는 구분해야

하는데 목적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의 목표를 식별하는 광범위한 의사 표현이다. 반면 목표는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을 통해 구축하기를 바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말한다.

목적과 목표와 함께 예상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프로젝트의 방향의 확실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리고 이외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독자로 하여금 프로젝트 진행자가 학문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고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연구에 대한

질의와 가설이 포함됨으로써 프로젝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다.

제안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 내용은

충실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감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감독자의

기본적 역량, 즉 전문성과 프로젝트 수행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